

올해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최우수 아이디어는?

-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 수상팀에 최대 1.7억 원 상당 지식재산 데이터 5년간 무상 제공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29일(목)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대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로, 신규 사업 모형을 발굴해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5년부터 매년 실시돼 올해 9회차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최근 화두인 챗지피티(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영향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수되었고, 총 70팀 중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5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상표권 분쟁 예방서비스'를 개발한 탭팀(대표 황채영)이 차지했고, 우수상(특허청장상)은 페이튼트온니노우즈팀(대표 박준영)과 메이크팀(대표 이웅희)이 수상했다. 장려상(한국특허정보원장상)에는 젠아이피팀(대표 정종구)과 에이아이비팀(대표 채승환)이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탭팀은 쇼핑몰 운영 중에 겪었던 상표분쟁 경험을 기반으로 상표권 분쟁 예방 서비스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허청은 각 수상팀에게 최대 1.7억 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등 정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연계도 지원한다.

* 행안부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 부여,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가점 부여 등

또한 수상팀 중 2팀에게는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기반의 창작·개발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데이터는 산업 및 연구 개발 동향 분석이나 투자 또는 금융지원을 위한 기업의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21년 우수상을 수상한 (주)엔톡은 지식재산 데이터와 고용 정보 등 대안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 성과 분석을 가능케 하는 ‘허블(Hubble) 데이터베이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사업 개시 1년 만에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했다.

* 대안 데이터 : 정부인증, 수상내역, 지식재산권 등 기업 성과를 보여주는 비재무적 데이터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대회에 제출된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양기성 (042-481-5134)
		담당자	사무관	송상용 (042-481-5359)
			주무관	이정현 (042-481-5137)



<최우수상 수상 사진>



<수상자 단체사진>

